데스크시각

정기태

환경정책, 무등산 옛길을 베껴라

'환경의 날'(5일)을 앞두고 무등산 옛길 조성 사업이 일단락됐다. 산수동 들목에서 시작되는 3구간 13.5㎞는 1, 2구간과는 달리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미답지다. '나무꾼 길'이라는 이름처럼 옛날 심마니나 다니던 길 같다. 등산로 초입과 청풍쉼터 뒤 '덕봉' 오르는 곳만 된비알이 있을 뿐, 코스 전체가 완만하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 능선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자연과 소통하는 통로

옛길에선 감춰진 무등산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허우룩한 심신을 추스르고, 사색의 시간을 다뿍 갖는데 제격이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쉬엄쉬엄 가도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등산보다는 산책한다는 표현이 맞을 성싶다. 노년층이나 꼬맹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게다. 어쩌면 머잖아 무등산 옛길 탐방 상품이 나올지도 모른다.

옛길이 돋보이는 것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이다. 인위적으로 울창한 숲을 훼손하지 않고, 편의시설도 철붙이 대신 고사목과 잡목을 썼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측은 편백과 소나무 빽빽이 우거진 사이로 자연과 동화된 명품 숲길을 닦았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마무리했다.

낙엽 수북이 쌓인 조붓한 흙길을 밟고 가는 발길은 가볍다. 굽은 산길을 걷다 만나는, 바람 시원한 모롱이에 서서 거풍하는 느낌도 그만이다. 이 호젓한 산행에서, 우리는 비로소 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며 아스라이 잊혀져 간 것들을 되살려주는 반추임을 깨닫는다.

전국의 옛길을 답사한 평론가 안치운은 그리하여 '옛길을 걷다 사라진 세월을 마주본다. 옛길은 우리가 걸으면서 보는 길이지만 동시에 추억하는 길이다. … 밟지 않는 내 앞의 길과 지나간 발자국을 위로하는 것은 떨어진 낙엽들과 흔적없이 길을 가는 바람뿐이다. 옛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길섶의 나무들이다. 천둥과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서 있는 나무들 아래로 옛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있다'고 썼다. (안치운 '옛길' 중)

무등산 옛길은 앞으로 광주시가 지향해야 할 녹색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것은 친환경적인 녹화 사업과 자연보존이 광주시정의 첫 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싸묵싸묵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자는 방향으로 흐르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청산도 슬로시티, 증도 모실길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 패턴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산자락을 파고든 아파트 단지에 숲과 내장까지 빼앗긴 광주는 찜통 도시가 됐다. 최근 10년, 광주는 장마 뒤 7일간 최고기온에서 여섯 차례나 대구보다 기온이 더 높았다.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책은 이젠 틀렸다. 분지(盆地)에 터를 잡은 이곳 사람들은 숲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대구는 지난 1996년부터 '푸른 대구 가꾸기'를 추진, 1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계명대학교 김수봉 교수는 식목운동을 시작한 시기(97~99년)와 그 이전(86~95년)의 온도를 분석한 논문에서 대대적인 나무심기 후 대구 온도가 평균 1.2도 내려갔다고 밝혔다.

도심녹화사업이 광주의 미래

광주도 지난 10여 년 동안 녹화사업에 힘써왔다. 하지만 주변환경을 아우르는 발상과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열섬현상(heat island)을 줄이려면 무등산을 중심으로 제석산·금당산·어등산 … 등을 주택가와 연결하는 '바람길' 조성, 아스팔트와 시멘트 건물로 뒤덮인 시가지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단한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 확대가 도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여, 지방선거 당선자들이여 무등산 옛길을 걸어보라. 그 오붓한 숲 속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지정이며 케이블카 등이 얼마나 부질없는 논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장 25.3㎞의 1, 2, 3구간을 꼼꼼히 살피면서 환경정책의 가닥을 잡아라.

밑그림이 없다면, 무등산 옛길이라도 베껴라.

〈편집부국장〉 meonsan@kwangju.co.kr

사설

투표 기권은 민주시민 포기 행위다

6·2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만큼 총선·대선 못지않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며, 유권자는 그 축제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투표는 광주·전남지역 1215개 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1만338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들어가면 2차례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연속으로 8명을 뽑는 '1인8표제'다. 찍을 후보가 8명이나 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가면 자칫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투표율 저조가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된 부재자투표율(89.9%)이 2006년 지방선거 90.8%와 2008년 총선(91.6%) 때보다 낮았다. 이번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하지만, 선거는 유권자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나와 가족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무리 1인 8표로 투표방식이 복잡하다 해도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꼭 준수해야 할 이유다. 유권자가 주인 의식을 잃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지 못한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늘어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도 그만큼 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결코 노는 날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20대 초반 새내기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유권자들은 정치의 변화를 내 손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꼭 기본권리를 행사하자.

나로호 2차발사 D-7 성공발사 기원한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2차 발사가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고흥 현지에서는 케이블 연결 등 마무리 점검이 한창이다. 발사 이틀 전 나로호를 발사대까지 옮겨 수직으로 고정시키고 하루 전 최종 리허설을 거쳐 오는 9일 오후 4시30분~6시40분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나로호 1차 발사는 궤도 진입에 실패해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로켓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긴 했으나, 싣고 간 과학기술위성 2호를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것이다. 우주기술의 높은 벽과 후발 주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우주개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그런 만큼 2차 발사에 임하는 나로우주센터 연구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1차 발사 당시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 문제도 완벽하게 보완됐다고 한다. 전기배선장치의 방전 예방장치가 설치됐으며 페어링 구동장치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분리화약이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회로도 보완됐다.

인공위성 발사는 작은 결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완벽한 마무리 작업이 요구된다. 철두철미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로호 2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에서 성공발사를 기원하는 축하행사와 성공응원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우주발사센터가 위치해 있는 고흥군과 전남도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주 개발은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 1차 실패를 거울삼아 우주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에는 나로호가 성공리에 발사돼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열 번째 국가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문화와 철학이 있는 시민축구단

다가오는 6월12일 그리스와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첫 경기를 하는 날 응원전이 열리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주)광주시민 프로축구단의 시민주 공모가 시작된다. 시민주 1주의 가격은 5000원이고, 11일부터 40일 동안 19만9100주 공모를 목표로 나선다.

2002년 광주에서 한국 축구팀은 4강 신화를 이루었다. 광주시민들은 참으로 즐거워 했고, 4강신화의 업적은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런 광주에서 시민축구단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창단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50억 원, 운영비는 매년 7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어렵게 창단을 한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이 성적이라도 좋아서 승리를 많이 해 준다면 좋은데, 성적마저 좋지 않게 된다면 지역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5·18 정신이 깃들어 있고,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축구단은 다른 지역의 축구단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문화와 철학이 있는 시민축구단이다. 여기서 문화는 시민축구단이 만들어 가는 신바람 나는 창조의 문화다. 축구 경기만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 쉬는 시간에 지역 대중가수들의 콘서트를 전개하고,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은 재미있고, 창조적이며 의미가 있는 골 세레모니를 한다. 응원을 하는 시민들은 응원 구호나 카드섹션을 시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표현한다.

철학이 있는 축구단은 바로 행복에 대한 철학을 담은 축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곳에서 찾는 경쟁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공존의 행복이다. 이기기 위한 축구가 아니라, 즐기는 축구이다. 경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다. 승리에 집착하는 시민의 의식은 패배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좌절이 따르게 된다. 승패에 상관없이 공을 몰고 가는 선수의 노력과 경기장의 응원 분이기, 파란 잔디밭, 응원을 함께하는 사람들 등 축구 경기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설령 경기에 지더라도 상대팀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이러한 시민문화는 다른 지방에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며, 이러한 감동은 이기고자 하는 광주가 아니라, 함께하고자 하는 광주 이미지를 담아 아시아문화도시 광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러한 컨셉의 시민축구단은 아시아문화도시 홍보대사가 되어 전국과 세계를 쓸고 다니면서 타지역민들과 외국인들에게도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의 문화와 행복 철학으로 느끼게 해준다면 지역발전이라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시민주 모집의 방법도 창조적인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서, 시민축구단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성공신화로 만들어 가자.

〈행복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고해주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가능해졌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의 편리성'이다. 내가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상품소개·기상예보·교통정보·원격교육 등 모든 정보를 무선인터넷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이 이 같은 편리성을 배가시키는 대표적인 제품일 것이다.

인간의 편리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설치된 도로에는 지상과 지하에 각종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로등·신호등·통신시설 등 지상에,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송유관 등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설치해 둔 것이다.

광주시는 지하 7대 지하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통신관련업체, 해양도시가스, 한국CES, 대한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하시설물은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나 통신 시설들이 도로를 차지하면서 도시 미관과 시민의 통행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나, 이를 모두 지하로 옮기는 한편 신규 도시개발 사업지역에는 지하 공동구를 설치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점용지 정보·점용료 산출 및 부과 정보·세외수입 부과 관리·각종 코드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우리는 종종 도로를 지나면서 상수도 배관공사·하수도 개설공사·전기·통신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현장을 자주 보게 된다. 평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걷기 불편하다거나 교통이 정체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공사상황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한 곳을 반복해서 굴착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로굴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해 내년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공유체계가 가능해지고 신속한 도로굴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 도로건설과·종합건설본부·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스템 구축 업무분석과 요구사항을 각종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굴착사업 시행자가 온라인을 통해 허가신청을 하면, 광주시청 및 자치구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허가승인하고, 시행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과 민원신청·심의·허가승인·사후정산 등 모든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처리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시민 불편도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특히 모든 도로굴착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중복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관련기관의 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 정보공유 활용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도로점용업무 및 도로굴착업무를 일원화해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無等鼓

갯벌 천일염

인류가 소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0년경으로 추정된다. 유목생활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곡류나 채소 위주의 식생활로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소금은 국가재정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삼국시대에 이미 공물로 사용됐으며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관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판매를 맡는 전매제도가 시행됐다.

성서에도 중요성이 언급될 정도로 소금은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로마에서는 병사들에게 급료로 소금을 지급할 정도로 귀히 여겨 왔다. 당시 소금을 '살라리움(salarium)'이라고 했는데 급료라는 뜻의 '샐러리(salary)'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남은 약 3000ha의 염전에서 국내 천일염의 88%를 생산한다. 전남산 천일염은 청정한 바다, 깨끗한 갯벌, 맑은 공기와 햇볕이 만든 천연소금이다. 염화나트륨 함량이 80%로 외국의 명품 소금에 비해 무려 10%나 낮고 미네랄과 유기물 함유량이 월등히 높다.

최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토판(갯벌) 천일염이 장판 천일염에 비해 쓴맛이 덜하고 맛이 좋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갯벌 천일염은 염전의 바닥에 검은 장판을 깔아 생산한 장판 천일염에 비해 염화마그네슘·황산마그네슘·염화칼륨 등은 절반 수준인 반면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갯벌 천일염의 가격은 kg당 2000원선이다. 비싼 값에 팔리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비하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분이나 맛에서 월등한 전남산 갯벌 천일염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뒤진 때문이다.

갯벌 천일염이 세계적인 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장판 천일염에 비해 일손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도 필수적이다. 명품 소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

TV만 틀면 신상품 소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TV를 통해 '신상녀'('신상품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뜻의 신조어)라는 말이 대유행이다. TV만 틀면 신상품 소개 프로그램들이 24시간 시청자들을 유혹한다. 유명 탤런트나 CF모델들이 나와서 소개하는 상품을 구입하면, 마치 자신도 그들처럼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과소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유명 연예인이나 모델들이 입고 걸친 옷과 악세사리를 구입해야만 직성이 풀리니 엉뚱한 과소비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적절한 소비는 경제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격의 높고 낮음과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르고 바른 소비가 중요하지, 광고에 매달려 특정 상품에 집중한 소비는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잘 판단해 적절한 소비를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